

화재감식평가기술사 제도 신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

김동자, 장동국, 신동일[†]
명지대학교
(dpshin@gmail.com[†])

건축물의 고층화, 복잡화 및 다양한 에너지사용으로 화재발생 패턴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, 화재발생건수도 2019년 40,103건으로 전년 대비 2,235건이 증가하였다. 따라서 화재와 관련된 책임소재 여부로 민.형사상의 분쟁이나 소송의 양도 증가하므로 화재감식 전문가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.

본 연구는 소방의 화재감식평가 영역에 국가기술자격제도상 기술사 등급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『화재감식평가기술사』 제도 신설타당성을 조사·분석하였다.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화재조사의 미흡한 부분 파악과 설문으로, 설문대상은 소방 및 화재감식 분야 채점위원, 서울과 경북지역의 화재감식업무 담당자이다.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첫째, 현재 소방기술사 자격은 자격 활용도 및 현장 직무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화재조사 분야 영역은 다소 미흡하며, 둘째, 화재감식평가기술사 자격 신설은 화재조사 전문가의 육성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의 86%가 찬성하였고, 셋째, 향후 국가자격으로 신설되는 자격의 평가항목 개선 필요성은 90%이상 찬성하였고, 자격수요의 정확성, 산업 및 직업변화에 따른 요인, 산업현장-교육-훈련-자격의 연계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.